A person is standing on a snowy mountain peak under a starry night sky. The person is silhouetted against the bright blue night sky, which is filled with stars. The mountain is covered in snow, and the overall scene is serene and majestic.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 개척사
08년 5/13 기준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 개척사 - 08년 5/13 현재

알래스카는 여름밤이 깊어가도 해가 질 줄 모른다. 페어뱅크스의 알래스카 대학 캠퍼스 운동장에는 자정인데도 조명 없이 야구 시합이 한창이다. 백야로 가득 찬 북극권이야말로 골프 마니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휴양지다.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에서 밤새 골프를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페어뱅크스의 여름 날씨는 최적의 여행을 선사한다. 7월 한낮에는 섭씨 20도를 오르내리며 8월 중에는 섭씨 30도까지 올라간다. 6-8월까지의 한낮의 길이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백야 현상이 펼쳐진다. 한겨울에는 반대로 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알래스카의 개척사를 대변하는 페어뱅크스

알래스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알래스카 중심부에 있는 페어뱅크스의 관광안내소에 가보면 'Extremely Alaska'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그만큼 페어뱅크스 주변에는 알래스카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1901년 세워진 페어뱅크스의 발전과 번영은 알래스카의 개척사를 대변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맨 처음에는 금광 도시로, 제 2차 세계 대전 때는 군사 기지로 번영했다. 1968년에는 프루드호만의 유전 개발로 트랜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1974년 시공한 직경 48인치 기름 송유관, 길이가 1,200킬로미터에 이름)이 이곳을 관통하면서 이 도시가 지닌 경제 가치는 가히 터질 듯해 보였다. 그러나 1986년 유가 하락으로 1990년대 말까지 더 이상의 경제 번영은 찾아오지 않았다.

다시 페어뱅크스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다. 몰려드는 관광객과 금을 찾는 수요로 인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도시 북쪽에 있는 포트 녹수 금광구에서는 1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1만 킬로그램의 금이 생산되었다. 이는 26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도시에 4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이게해 경제적인 부를 안겨주었다.

골드러시의현장인 엘도라도

페어뱅크스에서 꼭 보아야 할 것 중 하나는 금광을 방문해 사금을 채취하는 현장을 탐방하는 것이다. 탐방 코스는 1902년 골드러시 전성기에 금을 캔 장소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굴속을 지나면서금광업의 과정을 둘러보는 것이다.

엘도라도는 스페인 식민 시대에 자주 쓰였던 말로 영어로 옮기자면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페어뱅크스 인근에 자리한 엘도라도 금광구는 방문객이 직접 사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으로 알래스카의 골드러시 전성기를 맞이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즐거운 것은 자신이 패닝(약간의 흙을 담은 팬 위에 물을 천천히 흐르게 해서 사금을 발견해내는 과정)을 해서 얻어낸 사금으로 양에 따라 목걸이나 기념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사금을 채취하다가 가끔은 너깃이라 불리는 금덩어리를 발견해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1967년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알래스카랜드는 44에어커에 이르는 땅을 걸어 다니며 알래스카 개척 시대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마 파크다. 이곳에는 골드 마인, 골드러시 타운, 원주민 마을, 항공 박물관 및 각종 유락 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아웃도어 바비큐 가든에서는 훈제 연어를 비롯해, 광어, 소갈비 스테이크 등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원 안에는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관람 기차가 운행된다. 또한 항공 박물관에는 초기 알래스카 개척 시대에 사용되었던 각종 경비행기 모형가 500장 이상의 경비행기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알래스카 초기 항공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아타바스칸 인디언 마을에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역사와 풍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가옥과 생활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알래스카 혹독한 겨울을 대표하는 개썰매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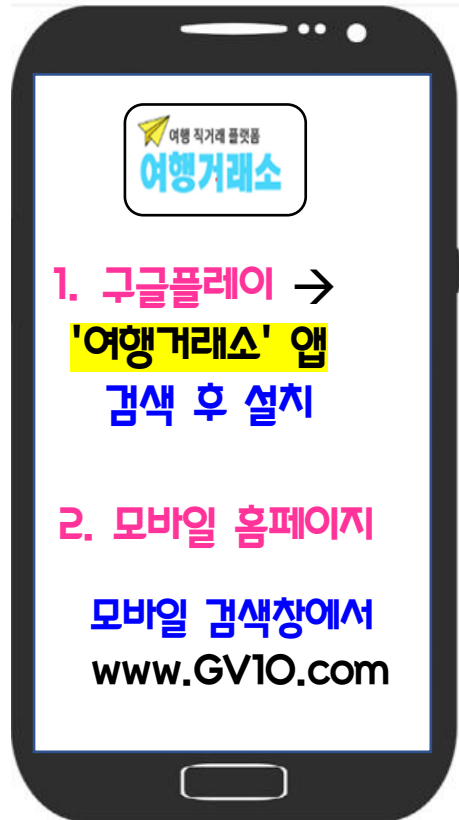
알래스카 개척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썰매다. 오늘날 경주 대회로 유명해졌지만 사실 개썰매의 시초는 최초로 사금이 발견되었던 놉(알래스카 북서부이 작은 도시)이란 곳에서 전염병이 돌자 개썰매로 의약품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개썰매는 우편배달과 금광 산업 등에 유용하게 쓰였다. 이처럼 개썰매는 알래스카의 개척사와 함께 발달해왔다.

페어뱅크스는 북미 대륙 개썰매 대회의 본고장이다. 페어뱅크스에는 북미에서 가장 긴 개썰매 경주 트랙이 놓여 있다. 알래스카의 대표적인 개썰매 경주인 이디타로드는 알래스카 구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67년 이틀 동안 80킬로미터를 달리는 경주로 시작되었다. 유콘 퀘스트라 불리는 경주 대회는 1,600킬로미터의 페어뱅크스와 캐나다의 화아트호스 구간을 달리는 것이다. 이 경주에는 3,000피트 이상의 산을 넘고 200마일 이상의 얼어버린 유콘 강을 달리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다. 앵커리지에서 놉까지 2,000킬로미터를 달리는 구간도 유명하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한 연예인이 모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으로 이 경주에 참가하려다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기르는 개와 함께 참여해야 했기 때문이다. 개썰매 참가자들은 대개 수십 마리의 개를 기르는데, 개중에는 200마리 가까이 기르는 사람도 있다.

개썰매에 사용되는 알래스카 허스키는 우리에게 늑대개로 잘 알려져왔다. 몸에 잔털이 많아 추위에 강한 게 특징 . 요즘 경주에 참여하는 개들 중에는 잡종이 많다. 그래서인지 양쪽 눈 색깔이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개썰매 경주때는 가장 똑똑한 개들을 맨 앞줄에 세운다. 개들은 보통 시속 35킬로미터 속도로 달리며 자기 체중의 3배 정도는 끄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개썰매에 사용되는 개들을 훈련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항상 뛰고 싶어 하는 개의 본능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경주용 개들은 비싼 연어를 주식으로 하고 비타민도 복용한다. 하지만 살이 찌면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은 개의 체중에 항상 신경 쓴다고 한다.

출처 : 주 앵커리지 한국 출장소 (080513)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아이폰에서

